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59期(2025.11.26) WWW.MINGHUI.ORG

한글판 1023호 minghui.or.kr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487만 543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미국 의회 상원 ‘파룬궁 보호법’ 발의자들. 대표 발의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공동 발의자 론 존슨 위스콘신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릭 스콧 플로리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톰 티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토드 영 인디애나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존 코닌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데이비드 맥코믹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주요내용

【해외종합】 미 연방 상원의원 8명, ‘파룬궁 보호법’ 공동 추진

【중국법회】 대지진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대법 수련으로 새로 태어나다

【중국법회】 시력이 나쁘고 문맹인 내가 대법 책을 읽게 되다

〈목차〉

■ 해외종합

미 연방 상원의원 8명, ‘파룬궁 보호법’ 공동 추진 3

■ 중국법회

대지진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대법 수련으로 새로 태어나다 7	
시력이 나쁘고 문맹인 내가 대법 책을 읽게 되다 18	
가정마다 NTD TV를 설치하다 25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 (상) 33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 (하) 47	
사부님께서 배치해주신 길을 걷다 62	
법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생 교류를 많이 보며 격차 찾아 침체된 곤경에서 벗어나다 71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 사람을 해친 것 아닙니까? 이 나쁜 사람들은 그들이 장악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데, 인간세상에서 그들은 이렇게 사람마다 적으로 만들고 서로 함정에 빠뜨리며 사람마다 방어하게 해, 사회 풍기를 미끄러져 내려가게 했습니다.

큰 우주 범위에서 구세력은 이렇게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정법을 교란하며 세상 사람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법제자로서는 법공부를 잘하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구하며, 정념으로 배후의 사악을 제거해야지 사람의 어떤 방법을 채용하는 데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 인식이 아직 낮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수련생이 다른 방면에서 저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면 일깨움과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대법제자로서 법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중생을 구원할 사명이 있으며 한 지역 중생의 희망입니다. 자신이 잘 닦았든 못 닦았든 사부님께서는 줄곧 애써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며, 우리가 빨리 제고해 올라와 법을 위해 온 그 중생들이 많이 구원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사존께서 유감을 좀 덜 느끼시게 합시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리에 맡기지 뭐”라고 대꾸한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저를 부끄럽게 했는데, 저의 수련과 사람 구하기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성이 섞여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도 높은 층차에서 생각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서도 종종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짓을 하는 사람은 몇 년 전 인터넷에 보도된, 작은 식당에 가서 오이무침을 시키거나 조식 가게에서 순두부(토우푸나오)를 파는 것을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낸 사건과 다르지 않잖아? 증거를 찾아 소송을 걸 수도 있을 텐데...약을 살 때 녹화한 건 미리 꾸민 것 아닌가...’ 심지어 법공부하고 발정넘 할 때도 생각났습니다.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억지 쓰는 사람에게 잘 대응할지 떠오를 때,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사부님의 설법이 생각나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2024년 6월 6일 《각성하라(驚醒)》에서 “대법제자는 신이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신의 경고가 아닌가? 왜 각성하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래 저를 일깨워주는 것인데 저는 도리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잘못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르자 잡념이 청리되고 제 마음과 공간장이 순식간에 많이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일이 연상됐는데, 제가 구체적인 일과 번거로움을 마주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이 어찌니저찌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 법에서 자신을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정법 중에서, 대법제자에 대한 이 몇 년간의 박해 중에서 나쁜 사람과 구세력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언제 옳은 적이 있었습니까? 줄곧 고층의 구세력이 사람 층의 빈틈과 그들이 잡은 이치를 이용

■ 해외 종합 ■

미 연방 상원의원 8명, ‘파룬궁 보호법’ 공동 추진

—미 의회 상원 청문회 “중공의 종교 신앙에 전쟁 선포”—

[명혜망](리징페이 기자) 2025년 11월 7일, 데이비드 맥코믹(David McCormick)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 ‘파룬궁 보호법’ 공동 발의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상원의원 총 8명이 ‘파룬궁 보호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파룬궁 보호법’(S.817 법안)은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3월 3일 발의했으며, 법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여전히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개인이나 공모자를 제재하고 중공에 책임을 묻는다.

“중공, 종교 신앙에 전쟁 선포” 미 의회 상원 청문회

11월 20일, 미국 의회 덕슨(Dirksen) 상원 오피스 빌딩에서 ‘중공의 종교 신앙에 대한 전쟁 선포: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 왜 이것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여러 증인이 중공이 강제, 협박 및 초국가적 탄압 수단을 통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 단체를 박해하는 상황을 진술했다.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공동 의장이자 ‘전국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전 대사)은 청문회 증언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중공의 파룬궁 집단학살 범죄를 인정하고,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

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지지하며,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의 인터넷 봉쇄를 뚫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미국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등 중공의 박해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면담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에서 탈퇴하도록 돕는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댄 설리번(Dan Sullivan) 연방 상원의원이 청문회를 주재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가 평화롭게 연공하고 가부좌했다는 이유만으로(중공의) 고문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양심과 신앙의 권리는 정부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에 필수적인 보편적 인권이다. 중공은 신앙의 힘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가치관과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며 중공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백 위원장 “중공, 파룬궁 가장 두려워해”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대사이자 캔자스주 연방 상원의원, 캔자스주 주지사를 역임한 샘 브라운백은 청문회에서 “중공의 신앙인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나는 중국(중공)이 종교 자유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의 항공모함이나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은 말했다. “이러한 종교 단체 중에서 나는 특별히 파룬궁에 대해 말하고 싶다. 중공은 그 누구보다 파룬궁을 두려워한다. 오랫동안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왜 그럴까?’ 파룬궁은 (중국에서) 가장 토착적이다. 이는 마치 캔자스주 토양에 밀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는 것과 같다. 7년 만에 (파룬궁) 수련자가 9천만 명 이상에 달했고, 이는 중국공산당을 극도로 공포에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똑같은 일, 똑같은 고비에서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넘지 못한다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장을 볼 줄 모르는 것이고 밖으로 보는 것이며 자신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교류 체험을 쓰는 이 기간에 한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한 약국을 운영하는 숙인 친구가 약을 짓는 사람에게서 억지 꼬투리를 잡혀 돈을 뜯겼습니다. 한약은 수천 년간 발전해 왔기에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과학적’ 사고로는 복잡하거나 좀 혼란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 이름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 천우슬(川牛膝)과 회우슬(懷牛膝), 온울금(溫鬱金), 남북사삼(南北沙參), 금전초(金錢草), 상당삼(上黨參), 명당삼(明黨參), 개자강황(個子薑黃), 편강황(片薑黃) 등, 똑같은 한 가지 약이라도 서로 다른 식물과(科)와 속(屬)에서 올 수 있고 다른 약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치료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품종상으로는 다른 과와 속이라 할 수 있어, 섞어 쓰면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일부러 이런 서로 대체 가능한 처방 약을 짓고 증거를 녹취한 뒤 약품감독국에 약국을 고발했으며, 당시 녹음하고 녹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약품감독국 부서에서는 이들이 전문 끈(파파라치)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약품감독국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며 약국에 그 사람과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친구에게 삼퇴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삼퇴를 알리는 것이 그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는 목적성을 띤 것 같은데다, 배후의 사령(邪靈)을 제거하는 효과에 도달하지 못해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숙인의 표면으로 보기에 그는 제게 얼버무리듯 “순

며칠 전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본래 그녀에게 권하려다가 처음에는 놓쳤는데, 그녀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다시 저를 찾아와야 했고, 저는 이것이 저에게 그녀를 구하라고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좀 조정하고 자신의 잡념을 깨끗이 청리(淸理)했으며, 예전처럼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가장 간결하게 말하기로 했고,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다시 저를 찾아왔고 저는 발정념을 하면서 그녀의 일 처리를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금방 잘 처리됐고, 평소 사람이 오가던 곳이 매우 청정한 곳으로 변해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삼퇴하고 평안을 지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탈퇴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당신과 가족에게 모두 좋습니다.” 그녀는 듣고 나서 간단히 알아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공청단원도 탈퇴해야 하나요?” 저는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며 입단할 때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했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녀는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이리저리 돌려 말하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볼 때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련생 교류를 볼 때 수련생이 닦은 것이나 법에 대한 이해, 정념정행(正念正行)이 자신을 매우 격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지 않으면 금방 또 정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서 심지어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 수련생은 어떤 일에서 저 수련생보다 깨달음이 높지 않다거나 좋지 않다고 비교하고, 심지어 그 속에서 마치 자신이 그 수련생보다 낫다는 환희심이 생겨 자신이 ‘더 높게 볼

떨게 했다. 중공은 파룬궁을 소멸하려 시도했다.”

브라운백은 “중공이 중국 인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공의 소행은 전혀 자신감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이 종교 신앙인을 억압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은 종교 신앙인을 괴롭히는 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며, 그들에게 ‘중공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중공에 의해 소멸되거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한다. 또한 중공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비해 이를 80개 권위주의 국가에 무작위로 확산시켰으며, 마치 사탕을 나눠주듯 이 시스템을 배포해 종교 자유 억압을 돕고 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브라운백 위원장

브라운백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이 종교 자유 전략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고 주로 인권 의제로만 다뤘다. 인권 문제는 종종 핵심 문제가 아닌 사소한 인권 의제로 취급받았다. 내가 보기에 현재 우리와 중공의 충돌에서 (종교 자유는) 국가안보 문제이며 필수적이고 긴급한 문제다. 우리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종교 자유를) 인권 문제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해야 하며, 명확하게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는 말했다. “중공은 종교 신앙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미국)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조금의 모호함도 없이 (중공의) 상대방에 서야 하며, 명확하게 (신앙인을) 지지해야 한다.”

브라운백은 “왜 우리가 이 신앙인들을 지지하는 데 주저해야 하는가? 종교 자유는 바로 미국의 가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댄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파룬궁,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도 등 중공의 박해를 받는 각 단체의 망명 지도자들과 만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세계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미 국무부 수석 외교관인 국제종교자유 대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캔자스주 주지사를 지냈다.

제가 더 많이 더 빨리 잘 닦지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잘 닦겠습니다. 법공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졸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공부 전에 바르게 앉아 작은 소리로 읽거나 묵념하며 법공부 때 판생각하는 것을 방지했더니, 어느 날 진지하게 세 강(講) 넘게 공부하고 이튿날 주위가 많이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교류 문장을 쓰는 것을 포함해 며칠간 견지하자, 비록 잘 쓰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견지하는 동안 자신에게서 좋지 않은 물질이 많이 제거된 것을 느꼈고 그렇게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발정념을 할 때 판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발정념을 견지해 정념의 작용을 발휘하겠습니다.

진상을 알릴 때 예전에는 가끔 생각나면 했는데, 종종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법공부하고 발정념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논리가 좋을지, 누구에게 말하면 틀림없이 탈퇴할 것이라고 구상했습니다. 심지어 구상할 때 자신의 구상이 ‘완벽’하다는 것에 환희심이 생겼는데, 정작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졌고 상대방은 아예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원망심이 생겨 ‘내가 이렇게 이치에 맞게 말하는데 왜 그는 동의하지 않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모두 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의 힘이 없으면 사람의 ‘이치’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 쟁투심, 질투심, 원망심이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수련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때로는 문득 조용해지면 자신이 수련할 줄조차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생의 교류도 제게 일깨워주었는데,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법의 힘에 달린 것이지 무슨 논리나 사람의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대법은 우주를 조성했고 우주 내 어떤 생명과 물질의 제한도 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련하는 사람이 어느 층차까지 수련되면 다만 그 층차 중의 불법의 구체적인 체현을 인식할 수 있다”(전법륜)고 명시하셨습니다. 수련 과정에서는 더 높은 층차의 이치인 법에 부합해야 하고, 엄격히 자신을 요구하며, 각 방면에서 잘 닦고 각종 집착심을 닦아버리며 자신을 닦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법공부를 많이 하고 세 가지 일을 잘 해 정법 노정을 따라잡기를 희망합니다.

수련생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마치 신화(神話)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련생들도 다 똑같이 사부님께서 속인 중에서 데리고 나오신 대법제자이고, 모두 사람 속에서 닦아 나오며, 다 육신이 있고, 모두 사람의 사유 구조 방식에서 닦아 나온 것으로, 똑같은 법을 봅니다. 그들이 닦아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축진이고 고무입니다. 동시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나, 혹은 자신이 겪었는데 잘 닦지 못했거나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비록 모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고 자신의 격차와 대비해 닦을 수 있습니다. 교류를 들을 때면 제 공간이 법광(法光)으로 밝게 비치고 먹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위대한 법은 각 층차의 위대한 각자(覺者)를 만들어내는데, 수련생과 비교하면 정말 정진해서 착실히 수련해야 하며 법에서의 격차가 너무 큼니다.

6. 조금씩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조금이라도 제고하면 그것도 제고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령 내가 끈기 있게 수련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설령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생명이나 한 생명 무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나는 견지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중국 법 회 ■

대지진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대법 수련으로 새로 태어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노년 대법제자입니다. 약 50년 전, 저는 대지진 때 무언가에 깔려 내장이 심하게 손상되고 하반신 마비가 돼 장애인 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가 살아남은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겨우 서른 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셨고 두 아이는 어렸습니다. 저는 구들장에 마비된 채 누워 스스로 앉지도 못했고, 남편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버티며 희망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1년 후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얻었고, 그때부터 생명이 완전히 새로워져 사부님을 따라 오늘 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나는 믿었다

1997년 정월 초이틀, 남동생이 신이 나서 직장에서 알게 된 공법이 있는데 정말 좋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파룬궁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난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남동생이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빌려다 줬습니다. 책을 받아 들자마자 동생은 책을 맨 뒤로 넘겨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소전(小傳, 간략한 소개글)을 보여줬습니다. 소전을 다 읽자마자 동생은 제게 책을 남겨두기 아깝다는 듯 손에서 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불쾌했으며 늘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올케가 놀러 왔길래 저는 대뜸 불평부터 했습니다. “남동생은 참 아이 같아. 그날 책을 가져와서는 조금 보여주더니 다시 가져가 버렸어.” 올케가 무슨 책이냐고 묻기에 저는 ‘전법륜’이라고 했습니다. 올케는 “그 책 우리집에 있어요. 아주 두꺼운데, 내가 지금 가져다줄게요”라고 했습니다.

‘전법륜’을 펼치자 가장 먼저 사부님의 법상(法像)이 보였는데, 어디서 뵈 분처럼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논어(論語)’를 읽어보니 너무 심오해서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게다가 책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보는데 그렇게 울어?” 저는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법륜’은 겉으로 보기에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고 너무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저는 책을 받쳐 들고 온종일 읽으면서 온종일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20여 년간 앓던 불면증이 씻은 듯이 나았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했습니다. ‘하루만 책을 봤는데 사부님께서 나를 관여해주시는 건가?’ 이튿날 저는 또 온종일 책을 읽어 다 마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공법을 배워야겠다!’

나중에 저는 남동생에게 부탁해 ‘전법륜’ 한 권과 사부님의 공법 교육 비디오를 구해 집에서 혼자 배웠습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는 힘든 것과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매번 비디오를

겪을 때 밖에서 2시간 정도 서서 100여 명에게 탈퇴를 권했는데, 저 자신은 시간과 힘이 있어도 연공을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려 모든 직원이 삼퇴하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게 했으며, 협력 회사 사람들도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게 했는데, 저 자신은 아직도 당당하게 삼퇴를 권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속인 중의 기술로 칭찬 좀 받았다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정념(正念)이 나오자 금방 순간적으로 혹은 하루나 며칠 내에 병업 고비를 해체했습니다. 어떤 이는 굳센 인내 속에서 1년 혹은 수개월간 고비를 넘기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골절로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지만 연공과 발정념을 견지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성한 팔로 다친 팔을 끌어당겨 연공했고, 결국 고비를 넘어 회복되고 심성이 승화돼 신체가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병업 고비를 두 번이나 겪고도 넘지 못했고, 제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인의 생각과 방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또 한 수련생은 말주변이 없는 수련생을 만난 이야기를 교류했는데, 다 같이 교류할 때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문을 나설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짧은 시간에 5명을 삼퇴시켰습니다. 정말로 대법의 위력을 보여준 것으로, 복잡하고 소위 치밀한 논리가 필요 없이 그저 두세 마디 문답으로 상대방이 탈퇴했습니다. 그 수련생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진상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인 순간에 그녀는 이미 5명을 삼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제 환자들을 삼퇴시키지 못하고 그저 가끔 측면에서 말해볼 뿐이라, 스스로도 수박 겉핥기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수련생은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구해 삼퇴를 권유하고 성사시켜 중생의 ‘짐승의 표’를 찢어주었습니다.

하다가 금방 또 해이해지면, 노력해서 명혜라디오의 수련생 교류와 정견(正見) 교류, 수련교류 등 수련생의 문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5. 대법제자는 정체(整體), 수련생의 빛을 빌려 자신을 비추다

생활 속에서 왕래하고 교류하는 수련생이 없어 저는 다운로드한 수련생 교류를 보고 명혜라디오 속의 교류를 최대한 듣습니다. 수련생의 교류에서 어떤 수련생은 집집마다 다니며 전 현(縣)의 100여 개 마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삼퇴를 권해 사람을 구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전 현에 점차 NTD TV를 보급해 세상 사람들이 점차 대법을 인정하고 보급을 돕게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공검법(공안·검찰·법원)에 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심지어 소위 친족만 면회를 허용한다는 제한을 돌파하고 감옥에 가서 수련생을 만났는데, 수련생이 몰라서 면회하지 않자 제한을 돌파하고 감옥장에게 청해 감옥 감방으로 들어가 수련생을 만나 교류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세 가지 일을 잘하는 여러 작은 일들, 그 과정에서 수련하고 제고한 교류는 모두 제게 큰 공감을 줬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법을 얻기 전 성격이 난폭했으나 법을 얻은 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법을 얻기 전 싸움을 좋아하고 흥포한 ‘건달, 깡패 군인’이었으나 법을 얻은 후 진선인에 따라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인(忍)을 잘 닦지 못한 것 같아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고 쉽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직장에서 주택 분양과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이익과 명예를 담담히 봤는데, 저 자신은 비록 때로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주 불평했고, 때로는 있을 듯 말 듯 한 기회를 보면 쟁취하려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심지어 ‘중풍 상태’ 병엽 고비를

보며 배울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가슴을 펴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 만에 다섯 가지 공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서서히 저는 대법이 단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수련을 가르치고 사람을 제도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언어로는 대법이 얼마나 좋은지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알리기 시작했고 친척과 친구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대법의 좋음과 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대법 수련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법공부 팀과 연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집에서 배우며 연공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주변 마을로 가서 법을 알리기 시작하자 주변 마을에서도 금세 많은 사람이 법을 얻고 연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을 알리는 수련생들을 보며 기뻐지만, 저는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없어 작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집 문 앞에 탁자를 하나 놓고 녹음기로 ‘제세(濟世)’와 ‘보도(普度)’ 음악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법 소개 자료를 한 장씩 건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법이 좋다는 걸 알았고 제가 혜택을 입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부님의 다롄(大連) 설법 비디오를 보던 때가 기억납니다. 화면에 막 ‘제2강’이라는 자막이 나오자마자 강력한 에너지가 제 일

굴과 상반신(저는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습니다)을 덮치는 것을 느꼈고, 온몸이 저릿저릿했는데 바로 에너지가 통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법공부와 수련을 하면서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세계관마저 전변(轉變)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상이 승화되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체 변화는 더 커서 심계항진, 저혈당, 갑상선 비대, 기침, 심각한 불면증 같은 많은 증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짝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주름이 줄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등 변화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저는 원래 46~47세에 폐경이 됐는데, 연공 후 50대인 제가 다시 월경이 시작돼 신체가 젊어지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대법은 좋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의 대법제자에 대한 교란과 박해는 우리 지역에서는 1999년 ‘7·20’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침에 단체 연공을 할 때면 낮선 사람이나 경찰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들은 현지 수련생들이 주말에 시 광장에 가서 단체 연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연공장마다 감시하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주말 어느 날, 날이 훤히 밝기도 전에 누군가 우리 연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려 공포감을 조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주변 수련생들에게 옷과 방석도 챙기지 말고 한 명씩 차례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이 발견했을 때는 나이 든 수련생 몇 명만 남아 가부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차를 몰고 쫓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연공장은 제 남동생 집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동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제 사람 마음과 정을 건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법을 좀 배우셨고, 돌아가실 때 저도 꿈에서 제가 비행기를 불러 어머니를 모셔가는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떠나시는 날 아침 꿈에 비행기가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의 정으로 이 일을 대했고 혈육의 정을 내려놓지 못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업 고비가 찾아왔는데, 비록 어떤 문제를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정진하지 못해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늘 원망심이 있었고 자비심이 없어 가정환경도 맑지 못했으며, 늘 아내가 부모님께 잘 못한다고 불평하고 아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중공 치하의 교육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경쟁하게 만들어 모두 불안 속에서 공부하고 과외를 받습니다. 아이의 학업과 신체 상태의 기복, 집안 생활의 사소한 일들이 모두 갈등의 구실이 됐고, 수련하고 제고할 기회로는 거의 삼지 않았습니다. 자비심을 닦아내지 못하니 다른 마음도 끊임없이 올라왔고, 심지어 색욕관(色慾關)에서 넘어져 병업 고비가 더 위중해졌습니다. 결국 고비 넘기기를 포기했습니다.

넘어진 후 힘을 다해 기어 일어나려 했습니다. 몇 년 전 입수한 수백 편의 교류 문장을 가져다 들으며 최대한 자신을 분발시켜 이 곤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 자신도 법공부와 심성 수련이 근본임을 알지만, 스스로 공부할 때는 해이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최대한 시간을 내어 수련생 교류를 듣는데, 많은 수련생이 어떻게 법공부를 잘하고 많이 해서, 그리고 발정념으로 고비를 넘겼는지에 대한 사례, 그 과정 중의 세부 사항과 어떻게 마음을 닦았는지 공유했습니다. 이것들도 제게 큰 격려와 일깨움을 줬습니다. 가끔 하루를 견지

버리자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이 시행됐는데, 입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지급 보장 비율을 통제(실제로는 대폭 축소)해 병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변칙적으로 핵산 검사 비용과 백신 비용을 환자 몸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 층층의 압력과 부담은 여전히 국민의 몸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어떤 호소나 분배 방안을 내놓아 자극하더라도,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 최대한 매우 경제적인 처방으로 치료합니다. 다른 의사나 외부 진료소에서 종종 1회에 수백 위안, 1천여 위안 하는 일주일 치료를, 저에게서는 대부분 100~200위안이면 일주일 한약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간단한 병세는 일주일에 수십 위안입니다.

4. 수련은 생활과 직장에서 심성을 닦는 것, 심성 부족은 다방면에서 나타나

수련이 정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한동안 상태가 괜찮았는데 법공부를 잘하고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점차 해이해지자 전체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두 가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점차 의식하지 못하게 됐고, 법공부 할 때 졸리면 쓰러져 자고, 깨서 조금 보다가 또 잤는데, 이것이 다른 수련생이었다면 저는 아마 일찌감치 이것은 수련의 큰 문제라고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느슨하게 지나쳐버렸습니다.

심성이 미끄러져 내려가 수련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니 신체도 미끄러져 내려가고 연공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병업 고비가 없거나 아주 작은 문제라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수련은 엄숙한 것입니다.

생은 한 자 세 치 길이의 붉은 천을 내왔고, 우리는 ‘진선인(眞·善·忍)’ 글자와 파룬 도형이 있는 현수막을 직접 만들어 연공할 때 앞에 걸어뒀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아침 5시가 넘었을 때, 한 무리 사람들이 강도처럼 동생 집으로 쳐들어와 현수막과 녹음기를 빼앗고 우리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공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그렇지 않으면 군중 소란죄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동생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대법은 바르며, 우리의 연공할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마당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뒷문으로 나갔고 우리 자매 넷만 남았습니다.

그 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집회예요? 우린 친자매라고요.” 울케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같이 연공하고 법공부하며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즉시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악을 썼습니다. “말하지 마, 다들 얌전히 있어. 얌전히 안 있으면 다 잡아갈 거야!”

그 후로는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세상을 덮을 듯한 거짓말과 모함, 탄압뿐이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정말 어머니 잃은 아이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련 환경이 파괴됐는데 어떡하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수련해야 했습니다. 대법은 좋고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여러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미국동부법회설법)고 하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실하게 수련하는 자는 구하고자 집착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을 것이며, 일체 공(功), 일체 법은 모두 책 속에 있는 것이라, 대법(大法)을 통독(通讀)하면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배우는 자는 스스로 변하니 반복적으로 통독함이 이미 도(道) 중에 있는 것이다. 사부는 법신(法身)이 있어 조용히 보호해 주니, 꾸준히 견지하면 훗날 반드시 정과(正果)를 이룰 것이다.”(정진요지-사부를 모시다)

외부 봉쇄가 매우 심하니 집에서 수련하며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평소와 같이 법공부하고 연공하며 굳게 마음먹으니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고성능 스피커에서 마을 수련생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모든 파룬따파 서적을 전부 상납하라고 했습니다. 몰래 숨겨두다 적발되면 연행해서 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제 첫 생각은 ‘낼 수 없어! 책을 그들에게 주면 난 어떻게 법공부를 하라고?!’였습니다.

이어서 사악은 또 무슨 서명을 하라면서 수련생들에게 대법과 결별하겠다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서명하면 집으로 보내주고, 안 하면 차에 태워 향(鄉) 정부에서 여는 세뇌반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장애인인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상 알리며 괴롭힘에 맞서다

그때는 대법 수련생이라면 서명을 했든 안 했든 마을 위원회 간부들이 거의 매일 경찰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24시간

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많은 의료진이 극도로 피로합니다. 많은 병원 의사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심지어 병원에서 목표를 제정해 의사에게 임무를 하달하고 상벌과 연결합니다.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와 일은 많이 하지만 식당 종업원보다 급여가 낮은 의사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예전 총리도 의료 개혁 회의에서 중국의 현재 의료 문제는 ‘체제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즉 그들도 의료 난맥상이 중공 체제로 인해 조성된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의료 환경 속에서 많은 의사는 리베이트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년 근무하는 동안 리베이트 약을 처방한 적이 없는데, 몇 년 전 한 의사는 병원 급여가 매월 2000~3000위안에 불과할 수 있어도, 제약사 리베이트 약으로 적으면 5000~6000위안, 많으면 1만여 위안을 챙겼고, 큰 병원은 약품 리베이트로 몇만 위안, 심지어 1년에 1000만 위안의 수입을 올립니다.

저는 리베이트 약을 절대 처방하지 않고 환자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데,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제 환자 수가 비교적 많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동료가 저에게 “당신은 이슬만 먹고 사나 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적게 벌어 적게 쓰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고 과외 시키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2년간 병원 시스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 전 국민이 반복적으로 핵산 검사를 하고 강제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핵산 검사도 돈을 낼 필요 없고 백신도 돈 낼 필요 없는데도 중공이 나쁘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 당시 의료보험 기금을 다 써

니다. 저는 이런 많은 경우가 진상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차원에서 힘닿는 대로 그에게 진상을 좀 알려주면 그는 기쁘게 떠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를 삼퇴시켜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했음을 알기에, 다른 대법제자가 이후에 그를 구해주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공부를 소홀히 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더 안 좋았고, 그들은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논리로 중공을 위해 말하곤 했습니다.

3. 중공 치하 국민의 생명은 고단하고, 사람을 아래로 밀어내고 있어

의료 계통에서 일하면 중공이 의료 계통을 파괴하고 아래로 밀어내는 것을 더 잘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공 치하에서 병원을 시장으로 내몰았지만, 인사는 죽어라 통제하면서도 재정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층은 기회만 있으면 일을 벌여 가능한 한 돈을 써대고, 물을 흐려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진 몇 가지 측면이 더해져 병원은 대부분 적자이고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베이징의 모 의료 부서 인원에 따르면, 국가 통계상 전국 부채 병원이 50~60%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더 높으며, 의료진의 수입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종 서류상 급여의 50%도 안 되게 지급하고, 게다가 의료 계통에서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로 파견하는 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요 몇 년 관료 체계의 대규모 붕괴로 검찰 부서는 설상가상으로 바빠지고, 더 많은 사람이 ‘쌍규(雙規)’ 조사를 받으며, 의료진까지 차출해야근을 지원해야 하는데, 다수 지원 수당도 어느 급의 부서에서 가로챘

감시했습니다. 수련생 한 명당 다섯 명씩 붙어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밤이면 이들은 담장 밖에서 지키며 10분마다 한 번씩 “자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우리집에 와서 괴롭히기에 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간부가 소개해줬는데 향장 등 간부들과 파출소 경찰, 그리고 다른 부서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가져다준 진상 자료를 이불로 덮고 그 위에 기대앉았지만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세뇌시키려고 중난하이(中南海, 중국공산당 집무실 소재지) 포위가 어찌고저찌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인은 누군가 파룬궁에 대해 불공정한 보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수련생들이 상황을 알리러 갔는데 텐진(天津)에서 사람을 잡아갔고, 뚫선에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뚫선이라면 당연히 베이징이니까 그래서 베이징 만인 청원이 일어난 거지, 무슨 포위 같은 게 아니에요.”

향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군.” 그러고는 “다시는 연공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자료가 발각될까 봐 목소리가 좀 작았고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또 우리집에 왔는데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우리 수련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해 전에 우리는 마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일 아침 마을 오락 센터에서 한 시간씩 연공했어요. 당시 그 마당은 매우 더럽고 어수선해서 잡초와 깨진 벽돌, 기와 조각이 널려 있어 도저히 쓸

수 없었어요. 우리 수련생 몇 명이 자발적으로 농업용 차량을 몰고 오고 집에서 삽과 곡괭이 등 농기구를 가져와 꼬박 이틀을 일해서 마당을 깨끗하게 치워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당시 마을 사람들은 다들 ‘저기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 좀 봐, 보수도 안 받으면서 일을 저렇게 잘해!’라고 했어요.”

“1999년 말, 전기요금을 낼 때였어요. 우리 지역은 분기마다 한번씩 요금을 내는데 우리집은 매번 120위안 정도 나왔어요. 그해 겨울 마침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하느라 침대 생활을 했는데, 온돌도 없고 난방도 안 돼서 전기난로를 빌려 썼어요. 그게 전기를 많이 먹어서 연말에 요금 낼 때 남편에게 돈을 넉넉히 가져가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요금을 낼 때 회계원이 줄을 잘못 봐서 아랫집 요금으로 받고 우리집 이름 뒤에 체크를 한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96위안을 냈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말했죠. ‘틀렸어요. 평소에도 분기마다 120위안 정도 나오는데 올겨울엔 전기난로까지 썼으니 더 나와야지, 어떻게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보내 회계원에게 확인하게 했더니 실수가 있었던 걸 알고 우리집은 508위안을 더 냈어요. 마을 서기가 즉시 스피커로 이 일을 방송했어요. 남들은 전기요금 더 나올까 봐 무서워하는데 우리집은 적게 나왔는데도 자진해서 더 냈다고요. 많은 사람이 우리보고 바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익을 점하지 않는다더니 진짜네’라고 감탄했어요.”

상대방은 제 얘기를 듣더니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좋으면 집에서 몰래 하세요.”

2000년 봄 어느 날, 촌장이 향 정부 사람 6~7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빨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중공이 통제하는 사회에서 인심(人心)이 예전 같지 않고 명리(名利, 명예와 금전)를 좇는 사람이 많은데, 비록 제가 수련을 그다지 정진하게 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진선인 법리대로 자신을 요구하고 환자를 위할 수 있으며 명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이 점에서도 저를 신뢰하며, 제가 환자의 돈을 아껴주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선원(神韻)의 운영 방식을 체득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직장도 중생을 마주하는 플랫폼인데, 요즘처럼 환자를 사고파는 변이된 시대에 나는 최대한 선(善)한 일면으로 환자를 대하자.’ 환자들끼리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사를 추천하기에 제 환자는 대부분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온 환자는 신뢰도가 더 좋아서 의사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적어 소통의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줍니다.

한동안 제가 일이 있어 규칙적으로 진료할 수 없어 환자 수가 줄거나 심지어 유실되는 것이 정상인데, 제 환자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고 게다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수련을 통해 일부분이 법에 부합했기에 상식을 초월한 어떤 규칙이 나타난 것일 겁니다.

일할 때도 어떤 초월적인 상태가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제가 비교적 순정한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었을 때는, 매일 연속해서 50~6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가장 바쁠 때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진료했으며, 오후 2~3시에 밥 한 술 뜨고 계속 진료했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맑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떤 이상한 환자를 발견하는데, 접수하지 않으려 하고 약도 처방받지 않으려 하며,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묻고도 가지 않습

그녀가 말한 이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정진하지 못한다고 느껴, 때로는 사부님께서 이미 저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자신은 관리받을 가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대법제자라면 반드시 중공의 사악함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고, 절 같은 곳은 다수가 저령(低靈)과 중공에 물든 곳이라는 점과 이렇게 명백한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일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여전히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상태에서도 사부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롭게 그녀를 보살펴주셨으니, 사부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 대법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모든 생명을 구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녀에게 법공부와 연공을 많이 하라고 격려했고, 수련생의 수련 교류 체험을 많이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 자신도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보고 많은 혜택을 얻었고, 이렇게 다년간 걸어오면서 정말로 수련생 여러분이 고생스럽게 교류의 장을 개창(開創)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문장을 보는 시간 동안에는 자신과의 어떤 격차를 볼 수 있었고, 수련생이 법을 실증하고 수련하는 상태 또한 제 영혼을 뒤흔들었으며, 제가 체험하지 못하는 대법의 더 많은 함의와 위대함을 더 많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2. 생활과 직장에서 중생을 대하며 신념(神念)과 인념(人念) 사이에서 배회하다

고급 중의사로서 대법이 주신 지혜 덕분에, 저는 동종 업계에서 비교적 작은 성취가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할 때 환자들의 신뢰도도 비교적 높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대법이 주신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문 중의학 서적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딜 가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촌장은 “오늘 당신들 사부 법신이 천안문에 나타나서 당신들 다 천안문에 와서 원만하라고 했었던 데!”라고 했습니다. 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제자인 저도 모르는 일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제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지 알겠죠?” 그 간부들은 순간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몇 년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마을 위원회 사람이 또 한 무리 사람을 데리고 갑자기 우리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저는 진상 호신부(護身符) 플라스틱 패를 만들고 있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얼른 홀이불로 덮었지만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악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발정념(發正念)을 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여느 때와 똑같이 아직도 파룬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게다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기적 같은 효과가 있어서 개인에게나 국가에나 수많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는데 왜 안 하겠어요? 또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규정돼 있고요.” 그러자 키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맞게 보셨어요.”

2008년 4월 말 어느 날 저녁, 막 연공하려는데 문밖에서 남녀 두 명이 바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파출소에서 왔으며 아주 공손하게 “방해한 건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해됐어요, 지금 연공 중이었거든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두 손을 모아 읊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화를 시작하려는지 비디오카메라를 꺼내 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엄숙하게 제지했습니다. “녹화하지 마세요!” 그 남

자도 눈짓으로 카메라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 ‘전법륜’이 여러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발행된 것부터 시작해서 병을 없애고 몸이 건강해지는 기적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병원가기 힘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사회 분배의 불공정과 각종 부패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며 대법은 사람을 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암전히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두 손을 모아 읊을 하고 뒷걸음질로 나가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원망안 하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수련인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찼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세요. 복을 받을 겁니다.”

작은 꽃을 피워 세상 사람을 구하다

2001년, 악당은 중국과 외국을 경악케 한 ‘천안문 분신’ 조작극을 꾸며냈고 한동안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제자로서 명백한 허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은 살생을 금하니 자살은 죄가 된다는 점, 몸에 불이 붙었는데 머리카락은 멀쩡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천안문 분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악독한 거짓말에 속아 망가질 것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골에는 대법제자가 적었고 학력도 낮았으며 나이가 많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온 마을을 통틀어 컴퓨터가 있는

어느덧 2년이 지난 2001년, 박해받던 한 대법제자에 대한 공감 때문에 그와 많이 접촉했고, 그는 제가 진정으로 대법 수련으로 들어오도록 격려했습니다. 지금 비록 정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상해보면, 대법과 정법 과정, 그리고 구우주·구세력과 사악이 정법을 교란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이미 당문화가 주입했던 당초의 그 아주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실수로 넘어져 다친 노년 대법제자를 만나 그녀와 간단히 교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도 그다지 정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치기 전 그녀를 찾아와 교류하던 대법제자와 논쟁하기도 했고, 아직 중공(중국공산당)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사회의 일부 사람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공이 중국 국체(國體)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중국인이 중공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중공이 없으면 누가 월급과 연금을 주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절에 가서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생과 논쟁한 지 3일 후, 그녀는 외출할 때 매일 다니던 계단 3개에서 넘어졌고(그녀 자신은 누군가에게 떠밀린 것 같다고 느꼈음)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후 수련생이 그녀와 교류하자 그녀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 일이 있기 전 그녀 몸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을 말해줬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법공부와 연공을 하지 않아 몸에 문제가 나타났고, 법공부와 연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수련생은 그 기간 압력이 커서 와서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녀 스스로 연공을 시도할 때 동공(動功) 공법의 손 동작도 잊어버렸는데, 연공할 때 어떤 힘이 그녀의 손을 비틀어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사부님께서 그녀에게 연공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련에서 어려울 때 매우 강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제 수련이 부족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진상 전화를 거는 한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 줄 몰라서 원고를 보고 진상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 전화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할 때 삼퇴 인원 에 집착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상을 알았지만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아쉽네, 어째서 아무것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내가 탈퇴시켜 줄 게 없나’라고 생각했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진상을 알릴 때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돼, 예전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경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교류를 듣고 저는 역시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저처럼 정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수련생과 교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는 분발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생명의 의미와 수요이고 사부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해 정법(正法)하시며 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 속에서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든 대법의 힘은 초월적입니다.

1. 우리는 모두 법(法)을 위해 온 생명

법을 얻기(得法) 전 어릴 적 우주와 인생에 대해 사색할 때, ‘진선인(眞·善·忍)’이 조합돼 제 뇌리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5월 13일, 저는 운 좋게 창춘(長春)의 한 법공부 팀에 참가해 법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에 오염됐거나 근기(根基)가 부족한 등 원인으로 대법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집이 몇 집 안 됐습니다. 정규 진상 자료가 없어서 저는 손으로 썼습니다. ‘파룬파파하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 ‘파룬파파는 정법(正法)이다’, ‘천멸중공(天滅中共)’ 등 문구를 종이에 써서 붉은 종으로 접은 작은 봉투에 넣어 각 집 문 앞에 배포했습니다.

나중에 읍내 수련생이 갑자기 우리집에 CD 복사기를 가져다줬습니다. 저는 얼른 우리 마을 수련생에게 연락해 공 디스크를 살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또 다른 10여 명의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컴퓨터를 샀고, 시내 수련생에게 배운 뒤 우리도 ‘작은 꽃’을 피워 작은 자료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걸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련한 후 보여준 모습들을 가족들이 모두 인정하고 지지했기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족 모두를 삼퇴시켰습니다.

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에 갈 때까지 손녀 친구들은 우리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애들이 오면 저는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집 주변 이웃들도 모두 권해서 탈퇴시켰습니다.

정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도해야 할 중생은 아직 많습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잘 수련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잘하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시력이 나쁘고 문맹인 내가 대법 책을 읽게 되다

글/ 중국 산둥 대법제자(구술)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9세이고, 1998년 3월 인연이 닿아 대법을 얻었습니다. 법을 얻기 전 저는 시력이 너무 나빠 뭐든 흐릿하게 보였고, 가시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아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면증, 신경성 두통, 어지럼증, 담낭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공부와 연공을 한 후 이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수련하며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加持) 하에 오늘까지 안정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신성한 법회가 열리는 기회를 빌려 저는 제 수련 과정의 작은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시력이 나쁘고 문맹인 내가 대법 책을 읽게 되었다!

저는 농촌에 있는 여성 대법제자입니다.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렵고 형제가 많아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법을 얻었을 때는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만 보았습니다. 당시 수련생들은 우리 집에 모여 단체 법공부를 했는데, 사부님 설법 비디오를 다 보고 나면 단체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옆에서 듣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졌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을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도 책을 읽고 싶습니다.” 이튿날 저는 보도원(연공장 책임자)에게 사부님의 ‘전법륜’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도원이 제게 “보실 수 있겠어

계단을 올라갔고, 이때 문이 ‘탁’하고 열리며 그가 나오고 제가 들어가니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사부님의 배치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17년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면, 자신만을 위하던 속인이었던 저는 사부님의 배치 하에 갈등 속에서, 불공정 속에서, 득실 속에서, 고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 마음(人心)과 사람의 생각(人念)을 닦아버렸습니다. 매번의 고비는 모두 속인의 마음을 버릴 기회였습니다.

이후의 수련에서 저는 계속해서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걷겠습니다.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제자의 책임과 사명이니 제자는 힘껏 완수하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법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생 교류를 많이 보며 격차 찾아 침체된 곤경에서 벗어나다

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경주(輕舟)

[명혜망] 저는 종의사이고 고급 직함을 갖고 있으며, 1995년부터 대법(大法)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고를 보고 수련교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도 수련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류는 서로 촉진하고 공동으로 제고하며, 좋지 않은 상태와 구세력이 조정한 각종 수련 곤경 속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집착과 누락을 찾아 수련해 올라와 대법에 동화되도록 돕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교류가 대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어, 제가 수

2020년 새해,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역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신속히 도시를 봉쇄하고 아파트를 봉쇄해서 수련생들이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를 할 수 없게 됐고, 모두가 매주 사용하는 진상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당시 제가 만든 역병 특간은 800여 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배포했지만 우리 단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포할 수 없었는데 어찌면 좋겠습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도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다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당시 저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는 것은 그래도 편리했습니다. 매번 제가 몇십 권을 가지고 발길 닿는 대로 거리를 걸으면, 사부님께서는 제게 어느 위치가 출입할 수 있는 위장 펜스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부님의 배치 하에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진상 월간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 과정 중, 법을 실증하는 길에서 저는 수시로 사부님께서 제자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늘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리면, 사부님의 신묘한 배치는 즉시 상황이 급반전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대학 사택 구역에서 진상 월간지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막 개조해서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동 사이를 오가며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사부님, 이 문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부님 도와주십시오.’ 막 말을 마치자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저와 멀지 않은 한 동의 2층에서 나는 것 같았고, 저는 이 현관문이 방금 기침한 사람에 의해 곧 열릴 것임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 동의

요?”라고 묻자 저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에게 ‘전법륜’ 한 권을 구해다 주었고 저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전법륜’을 읽고, 사부님의 모든 대법 서적도 다 읽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단체 법공부 때 저는 다른 수련생들이 읽으면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따라 읽었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고 사전을 찾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전법륜’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사부님의 다른 저서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흐릿하던 제 눈은 점차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법공부를 한 지 1년 반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는 대법의 신기한 위력 덕분이었습니다.

2. 박해를 부정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다

1999년 ‘7.20’ 때,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광적인 박해를 시작하자, 저는 대법과 사부님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해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베이징에 갔습니다. 대법은 사람들에게 선(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수련생들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두 차례 베이징에 갔다가 납치됐고, 우리 지역 구치소에 감금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더 이상 청원하러 가지 못하게 되자 저는 밖에 나가 진상 전단지를 배포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번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됐습니다.

2001년 1월 설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세뇌반에 불법 감금됐을 때 저는 한 수련생과 함께 한밤중에 담을 넘어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 후 우리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위험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다른

수련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운 좋게 그 지역 수련생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서야 사부님께서 ‘사악을 질식시키자’라는 경문을 발표하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구했고, 그 후부터 계속 밖에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때 한번은 사부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대법제자 하늘 높이 올라 천지를 주관하여 인도(人道)를 바로잡는도다”(홍음2-예견). 이를 계기로 저는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이고,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생사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바로 신(神)이며”(미국법회 설법-뉴욕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제자들은 장래 인간 세상의 도(道)를 바로 잡는다고 하였고,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사악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대법제자는 모두 사부님께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떠돌이 생활을 부정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3. 확고한 정념으로 가정의 시련을 돌파하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아들을 찾아가 집안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세뇌반에서 탈출한 날, 아빠가 한밤중에 납치되셨어요. 이튿날 그들이 아빠를 고문하며 엄마의 행방을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하자 계속 때렸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맞서지 마세요. 정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칼을 들고 엄마를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련을 잘했든 못했든 사부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중공 악당의 대법제자들에 대한 박해는 그들의 가정에도 화를 미쳤습니다.

이 일은 제게分別심이 있음을 보게 했으며,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상을 전하는 것이고, 만날 수 있는 생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과 악 사이에서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하고, 그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구하시려는 생명임을 알게 했습니다.

매년 4분기가 되면 우리 팀 수련생들은 협력해서 진상 달력을 만들고 달력을 배포합니다. 저는 여러 수련생과 협력해서 달력을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출근해야 했기에 많은 경우 저 혼자 나가서 달력을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습니다.

한번은 이미 깊은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길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상 달력을 메고 텅 빈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너무 고생스럽구나. 당신들은 이 속세에 미혹되어 매일 명리를 위해 분주히 다니며 자신이 세상에 온 참뜻을 잊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쪽 길목에서 수레를 미는 노인이 나타나 저는 얼른 쫓아가 달력을 건넸습니다. 그에게 진상을 알리자 노인은 시원스럽게 삼뱃에 동의했습니다.

몸을 돌리는 사이 옆에 또 한 여자가 나타나 저는 그녀에게 진상 달력을 건네고 진상을 알리자 그녀도 매우 시원스럽게 삼뱃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얼마 가지 않아 진상 달력을 다 배포했는데, 그날 만난 사람은 모두 진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의 수련 상태와 세상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체득했습니다! 자비는 법에서 오고 정념은 법에서 오니, 사부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려면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잘 배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알리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발정념을 하면서 동시에 안으로 자신에게 어디에 누락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이날 겪은 크고 작은 일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됐고, 저는 단번에 문제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화면은 CD를 배포하기 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는 꽤 위험해.’ 저는 당시 그것을 쉽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위험이 있음을 승인했으니 위험한 요소가 즉시 작용을 일으킨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 불러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교훈을 꼭 기억하고 잘 수련하겠습니다.’ 구치소에 간 지 10일째 되던 날, 사부님의 보호 하에 우리 세 사람은 무조건 석방되어 함께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인연 있는 사람 18명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선택했는데, 그중 한 명은 마약 복용으로 들어온 감방장이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저는 자리를 바꿀 방법을 생각하며 각기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지만, 이 감방장에게는 알릴 생각이 없었고 그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장이 갑자기 배가 아파했는데,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라고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심껏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보세요.” 그녀는 정말로 외웠고 즉시 배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삼퇴를 권하자 그녀는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악당 요원들에게 납치된 후 억울하게 폭행과 위협을 당해 화가 잔뜩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여긴 왜 왔어!”라고 호통쳤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남편을 부르자 그는 먹지 않고 아들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나가, 이 여자를 죽여 버릴 거니까! 나를 원하는지, 파룬궁을 원하는지 오늘 결판을 내고 말 거야!”

아이들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칼끝을 제 가슴에 대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心不動, 能制萬動).”(정진요지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 그래서 기세등등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 대법을 원해요!” 그가 연속 세 번을 물었지만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협해도 소용이 없자, 칼을 바닥에 던지고 이번에는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일단 밥을 다 먹고 이혼하러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남편은 “가자!”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 부모님을 뵈러 가자. 이혼하면 못 볼 테니.” 저는 그 기회에 말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이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없을 때 당신 고생이 참 많았어요. 앞으로 몸조심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세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마침 어머니와 올케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올케는 “둘째 아주버님, 둘째 형님 오셨네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우리 이혼하러 가는 중인데 그 전에 부모님 뵈러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이혼한다면서 부모님은 왜 봐요?! 썩 나가세요!”라고 하면서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하려는 이유를 묻자 “파룬궁 때문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그 말을 듣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올케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파룬궁을 수련하시니 아주버님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제수씨가 당신이 수련하는 걸 지지하니 나도 이제 상관하지 않겠어. 어디 가서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든 마음대로 해.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집은 단체 법공부 장소예요. 수련생들을 우리 집에 불러 법공부하고 연공하게 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좋아. 당신이 무슨 대법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도 도와주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랑 이혼 안 할 거야. 방금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그제야 두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사부님의 가지 하에 저는 확고한 정념으로 가족 정(情)의 난관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4. 가정 자료점을 다시 세우다

대법과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의 감화로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수련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점(소규모 인쇄소)을 세워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의 시선은 그가 보고 있던 진상 자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젊은 생명이 진상을 알 수 있음에 안도했고, 사부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제자에게 ‘진상 자료는 계속해야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법을 실증하는 이 길에서, 건물에 올라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든, 대면해서 진상 자료를 전해주든, 혹은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든, 아니면 진상 표어를 붙이고 진상 현수막을 걸고 스프레이로 글자를 뿌리는 등등, 모두 법을 실증하는 것이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했으며, 사부님께서도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상을 알게 배치하셨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저는 비록 늘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한다고 생각했지만 틈을 타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중순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팀 수련생들은 오전에 함께 법공부를 하고 오후에 선원 CD를 배포하러 갔습니다. 예정된 장소에 도착해서 경찰 두 명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수련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조용히 발정념(發正念)으로 장을 청리했는데, 금방 경찰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큰 거리와 골목을 따라 마주 오는 행인들에게 CD를 증정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가져온 CD를 다 배포하고 다시 수련생 가방에서 10여 장을 꺼내 계속 배포했습니다. 제 손에 마지막 CD 한 장이 남았을 때, 경찰 몇 명이 제 앞에 나타났고, 저와 다른 두 수련생은 파출소로 납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사악의 어떤 명령과 지시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경찰이 들으면 그에게 진상을

말로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예만 들어 수련생들과 교류하겠습니다.

득법 초기, 조카딸이 제가 사는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교에서 기숙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었고, 조카딸은 우리집에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막 유치원에 들어간 딸을 돌봐야 했으며, 밥하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다시 조카딸의 잠자리까지 챙기다 보니 법공부하고 연공할 시간이 심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부님 법상 앞에서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카딸이 제게 와서 사는 것이 사부님의 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100% 받아들이고, 완전히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이 일을 대하겠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배치가 아니라면 저는 강요된 어떤 배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날 조카딸은 제게 앞으로 학교에서 살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팀 수련생들은 선원(神韻) 공연 CD를 대량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당시 중국에서는 선원 CD 배포가 허용됨). 그 몇 년간 우리는 매일 저녁 CD 케이스를 붙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가서 대면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진상 월간지, 수련생들을 향한 『명혜주간』 배포는 적어졌고, 나중에는 거의 멈추고 선원 CD만 배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버스에 앉아 진상 자료 배포를 멈춘 일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태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때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고 사람들이 바쁘게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 젊은이가 인파 속에서 진상 자료를 매우 집중

제가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수련생 한 명이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와 연공을 했으며, 수가 점점 늘어 법공부 팀이 점차 회복됐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두려움 때문에 잠시 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몇 명이 오든 하루도 빠짐없이 단체 법공부를 이어갔습니다.

2주 후 저는 우리집에 자료점을 다시 세우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자료 만드는 기계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가져갔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 다 집에 있어. 당신이랑 아들이 다 잡혀간 후 여길 찾아올 걸 알고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겨뒀지. 밤새 안 자고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남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돈 주고 산 건데 빼앗기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다시 자료점을 세웠습니다.

그 후 우리가 법공부를 하고 자료를 만들 때면 남편은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두드려서 신호를 보냈고, 집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를 도와 자료도 포장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아주 잘했고 우리와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도 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세상 사람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같이 진상 스티커를 붙이고 전단지도 배포했습니다.

단체 환경이 있게 되자 수련생들의 심성 제고는 아주 빨랐고,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부님의 보호 하에 순조롭게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하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5. 사부님과 대법을 믿고 정념으로 병업 고비를 돌파하다

2002년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들고 법공부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이어폰을 끼고 사부님 설법 녹음을 들었는데,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잠시 후 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깨어났고 또 다시 사부님께 저를 좀 구해달라고 연속 빌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 번이나 혼절했는데,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을 꽂고 사부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구세력의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 수련이 안 된 곳이 있다면 나는 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구세력의 배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사부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저는 침대에서 간신히 내려와 사부님 법상 앞에서 합장하고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의 수련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반드시 사부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며, 반드시 사부님을 따라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정념을 확고히 하고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불법신통(佛法神通)으로 사마(邪魔)와 난귀(爛鬼)를 제거했으며, 매일 꾸준히 법공부, 연공과 발정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 몸은 하루하루 좋아졌고, 보름 만에 제 목숨을 앗아가려던 병업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제 개인의 수련 체험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님께서 배치하신 것이 아니면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잡히거나 심문받는 그런 사상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니며, 저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세력이 배치한 길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배치하지 않으신 것은 나는 다 원하지 않는다.’

초기에 저는 법공부가 깊지 않아 어떤 생각은 정념(正念)이 아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제 마음속에서 한 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하지 않으니 나는 두렵지 않아.’ 저는 당시 이것이 정념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밤에 꿈을 꿔는데, 나쁜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데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한 다리 밑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사람이 단번에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쫓아온다는 것은 구세력의 배치임을 설명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는 단지 속인의 용기일 뿐이며, 게다가 박해가 존재함을 승인하는 사유 속에서 발생한 일종의 대응 사유입니다. 속인의 사유가 어떻게 구세력이 배치한 박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제게 일깨워주셔서 이것 역시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으며,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걷고, 잡히거나 박해당할 것이라는 사유를 철저히 제거해야만 구세력이 배치한 그 한 세트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3. 사부님께서 배치해주신 길을 걷다

이 몇 년간의 수련 중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오직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만 걷겠다’는 일념을 끊임없이 확고히 했고, 많은 일이 정

2. 이치에 따라 구분하다

법을 얻어 수련함과 동시에 저는 더 많은 세상 사람이 대법 진상을 알게 할 책임이 제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구세력에 대한 인식이 모호했고, 어떻게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할 때 제 사상 속에는 끊임없이 ‘만약 붙잡힌 후에는 경찰에게 어떻게 맞서겠다’ 등과 같은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상은 수시로 저절로 튀어나왔고, 억누를 수 없었으며 제거되지 않았는데, 제가 법 속에서 사부님의 배치를 깨달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수련생에게 편차(偏差)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法輪(파룬)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전법륜)

사부님의 법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수련생에게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전제는 우리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부터 닥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저는 먼저 진정한 수련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조해 보고, 다시 그 붙잡히는 것과 경찰과 어떻게 지혜와 용기를 겨룰 것인지를 생각하는 매우 완고한 사유를 보니, 이것은 진정한 수련인이 가져야 할 사유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당하는 것을 배치하지 않으셨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부

가정마다 NTD TV를 설치하다

글/ 인의(仁義,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한 노년 대법제자로, 현재 일흔 살이 넘었습니다. 20여 년간 대법 속에서 수련하며 저는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자비롭게 제도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 중 하나이며,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처음 대면해서 진상을 알릴 때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술술 잘하다가도 막상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려 하면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척 조급했습니다.

저는 일 년 내내 거리를 누비며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들에게 여러 차례 함께 다니며 경험을 배우고 감을 익히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대다수 수련생은 이미 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진상 전단과 소책자를 배포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저 혼자 더듬거리며 조금씩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았고 구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2,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진상 알리기를 잘하는 수련생과 짝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동수님은 NTD TV 설치 항목을 잘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구하는 힘이 더 커요!”라고 말했습니다. ‘NTD TV 설치라고? 난 할 줄 모르는데! 게다가 누구한테 배

운단 말인가?’ 저는 마음속으로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법공부가 깊지 않아 일하는 것만 알았지 법에서 법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저는 압력을 무릅쓰고 가족들과 상의해 집에 NTD 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중공 악당의 박해를 초래할까 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가족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저는 기술 수련생을 청해 우리집에 NTD TV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NTD TV 설치와 채널 설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당시 기술 수련생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NTD TV 설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수련생은 그 자리에서 승낙했고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수련생의 도움으로 저는 얼마 안 돼 설치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 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막 시작했을 때는 국면을 열기 위해 무료로 설치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악당이 트집 잡을까 봐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친척과 친구부터 시작해 NTD TV 설치를 권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설치에 동의한 경우,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 겨우 설치와 설정을 마쳤지만, 무슨 낚시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며 감히 채널을 돌려 NTD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고 늘 악당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당 요원에게 발각돼 처벌받을까 봐 몰래 수신 장비를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구하는 항목이 한때 좌초돼 구원받은 사람 수가 극히 적었고, 어떤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냉정한 사고를 거쳐 저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악당의 꾀데기를 깨부수는 것이

다 어느 날, 그가 권하지 않자 저 스스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싹텄습니다. ‘연공을 한번 해볼까?’ 바로 이 일념에 사부님께서 저를 관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사부님께서 제 신체를 청리(淸理)해주시기 시작했는데, 현상적으로는 설사였지만 몸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낮에는 정상적으로 일했고 설사 증상도 없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법공부할 때 저도 사부님의 설법을 어느 정도 들었기에, 사부님께서 이미 저를 관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공을 가르쳐 달라고 먼저 청했습니다. 제2장 공법을 배울 때 저는 파륜(法輪)이 양팔 사이에서 회전하는 것을 느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파륜이 회전하는 에너지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순간 무신론이 제 마음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중공 악당에게 교육받은 무신론자에서 순식간에 180도 대전환해 파륜따파 수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부님께서 창생을 제도하러 오셨으며, 이것은 만고에 만나기 힘든 수련 기회임을 굳게 믿습니다!

남편은 당시 제가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너무 일찍 보면 이해하지 못해 장애가 생길까 봐 걱정했고, 그래서 제가 막 법을 배울 때 『전법륜(轉法輪)』 외의 사부님 설법을 보지 못하게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와 다투지 않기 위해 저는 그가 집에 없을 때 봤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함에 따라 저는 대법 진상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에게 진상을 분명히 알릴 책임이 제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렬한 책임감을 안고 우리집에는 금방 자료점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법공부를 했으며, 주말에는 나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배치해주신 길을 걷다

글/ 중국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한 사기업의 부서 매니저이고, 올해 53세입니다. 2008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이미 9년이 됐을 때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법을 얻어 수련한 후 저는 마치 즐거운 작은 새처럼 느껴졌고, 중국의 이런 박해 환경 속에서도 대법을 수련할 수 있고 사부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기회와 인연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련한 것은 아니지만, 수련 후 저를 괴롭히던 만성 위장염, 인후염, 목 디스크, 허리 근육 손상 등 병이 모두 깨끗이 나았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약 한 알 먹지 않았고, 주사 한 번 맞지 않았습니다. 17년 전 입사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직원 단합대회로 함께 등산할 때면 제가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합니다. 제가 건강한 신체를 가진 것은 전적으로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입니다.

17년의 대법 수련 과정에서 저는 아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래에 제가 수련하면서 얻은 일부 체험을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합니다.

1. 입도하여 법을 얻다

남편은 저보다 15개월 일찍 법을 얻어 수련했습니다. 그때 그는 갖가지 기회를 찾아 저에게 대법 수련을 권했지만, 당시의 저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말할수록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

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리를 누비며 인연 있는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그들에게 NTD TV의 진실성과 신뢰성, 중공 TV의 거짓 기만 정보가 국민을 속이는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면해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거절당해 제가 수련하는 이 길에 병목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조급했습니다. ‘설마 이 중생구도의 길을 나는 갈 수 없는 것일까?’

이때 저는 사부님의 법이 생각났습니다.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본보기가 없으며 매 사람이 걷는 길은 모두 다르다.”(정진요지2-길),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 저는 환히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날 돕고 계시는구나!’

저는 가부좌하고 안으로 찾았습니다. ‘나는 왜 거절당했을까? 이렇게 신성한 사람 구하는 항목을 사람의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조급해하는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다. 나는 일하는 마음이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심보다 커서 일하는 것을 수련으로 여겼다. 애써서 욕상에 올라가 설치해 놓은 수신 장비가 철거되자 원망심과 불공평해하는 억울한 마음 등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모두 내가 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다.’ 집착을 찾아내자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수련생이 저를 찾아와 시골에 있는 외삼촌 댁에 NTD 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숙모가 몹시 위중한 병에 걸려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수의와 묘지까지 다 사놔서 아마 가망이 없을 거예요. 외삼촌은 퇴역 군인

에 오랜 공산당원이고 성격이 무척 포악한데, 요즘 기분도 안 좋으니 절대 그에게 대법 진상을 말하지 마세요. 반감만 살 테니까요. 먼저 NTD TV를 보게 해서 스스로 서서히 바뀌게 하죠!” 저는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댁에 도착해 마당에 들어서니 엉망진창이었고, 바깥방 바닥은 솔과 그릇이 어질러 있고 땀감이 쌓여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병들어 누워있는 안주인 외에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후 제가 고개를 돌려 보니 북쪽 벽에 마오쩌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진상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자니 바깥양반 표정이 차갑고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수련생이 거둬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말하지 않자니 안주인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위태로운데 일단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저는 사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사 청했습니다. 저는 기필코 중생을 구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케이블이 지나갈 방향을 살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게 다 까닭이 있었네요. 저것(마오쩌둥)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주인이 다급히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는 제가 풍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오쩌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인데 음과 양은 서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의 전통은 설이면 사당에 조상을 모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지만, 누구도 감히 오래 머물게 하지 않

건 처리가 아주 번거로운데 공안, 검찰이 사건을 철회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판사가 이제 진상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중국법회 원고모집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글을 완성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을 바랍니다.

어머니 사건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안배해 진상을 듣게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안·검찰·법원 사람들도 정말 어렵고 쉽지 않으며, 그들은 구원받을 희망을 우리에게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제고해 올라와 중생이 구세력이 안배한 생명 도태의 대재앙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으로 찾는 것은 하늘로 통하는 법보(法寶)입니다. 매번의 제고는 모두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문제를 찾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사부님께서 더 많은 법리의 함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법을 잘 배우고 안으로 찾으면 험난한 길도 탄탄대로로 변합니다. 젊은 수련생들이 마지막 시간을 다그쳐 젊은이의 장점을 이용해 용맹정진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공의포럼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리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정념을 강화해준 수련생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정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정진하여 원만해서 사부님을 따라 돌아갑시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잘것없어지고, 당신들 자신은 높고 크며, 정념이 족해질 것이다. 정말로 모두 이러하다.”(각지 설법10-에포크타임스 회의 설법)

가는 내내 저는 이 법을 외우며 마음이 점점 든든하고 확고해졌습니다. ‘맞다. 이번 재판은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에게 공정을 베풀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 사건이 어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며, 검사를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고 그들에게 선의 힘을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재판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판사는 재판석에 앉지 않고 대부분 우리 변호석 쪽에 서 있었고, 가끔 어머니 쪽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게 지난번처럼 긴장하지 말라고 했으며, 1차 재판 때 말을 아주 잘했고 이번에도 매우 괜찮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공소인이 제 변론에 반박할 때 판사는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변론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말하세요. 내가 재판 후에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인도 매우 잘 변론했고, 각지의 파룬궁 사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불기소, 체포 불승인, 사건 철회 사례도 있었고, 실보실소(實報實銷, 구금 기간만큼만 형기 선고) 판결도 있었습니다.

각지公安·검찰·법원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해 ‘되도록 체포하지 않고, 되도록 기소하지 않으며’ 어떤 판사는 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어떤 사건은 처분보류로 흐지부지 끝나기도 했으며, 보석이나 감외집행 등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선이 이 사건에 서명해 책임을 져주지 않았기에 결국 담당자가 스스로 책임을 떠안고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아주 진지하게 들었고 자신도 지금 골치 아프다며 이 사

고 2, 3일이면 보내드립니다. 안 갈까 봐 두려워 폭죽을 터뜨려 환송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안사람에게 탈이 생길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일 년 내내 저것을 집 안에 두고 있으니, 특히 허약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깥주인이 의아해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신불(神佛)이 아닙니까? 보호해주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불은 자비롭습니다. 우리 나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저것은 당신에게 하늘과 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훼손하고 부처를 비방하면 응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저것은 당신에게 사찰을 헐고 불상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을 기만하고 조상을 멸시하는 것을 감히 못 하는데, 저것은 당신에게 공자와 맹자를 비판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저것은 산아제한을 크게 벌였습니다. 심지어 저것과 함께 천하를 얻은 사람조차 좋게 생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에는 응보가 있다는 것은 천리이니 저것은 악행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 저것을 모시는 집은 해를 입고 끊임없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주인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똑똑히 듣지 못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디서 말을 잘못했나?’라며 얼른 안으로 찾았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밖에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소리치세요?” 바깥주인은 마오쩌둥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떼어내라!”

저와 수련생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아궁이에 넣어 태워 버리게.”

이때 수련생도 진상을 알리기 시작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고, 온 가족이 모두 삼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반드시 신체가 건강해지고 평안하고 상서로울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NTD TV 설치를 시작했고 사부님의 가지 하에 아주 순조롭게 설치해 금방 TV 채널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NTD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도록 저는 TV 프로그램이 모두 진실하고 믿을 수 있으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또 장기간 시청하면 주위의 바르지 못한 요소를 바꿔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장을 형성해 건강에 크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은 제가 한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들도 매일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련생이 기뻐하며 제게 알려줬습니다. “외숙모가 NTD TV를 보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한 뒤로 몸이 하루하루 좋아져서 지금은 땅을 딛고 내려와 밥도 해요. 그 집 식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희소식을 듣고 저도 몹시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깨지기 일보 직전이던 가정이 사부님의 무량하고 자비로운 제도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설치를 배우고 있는 두 수련생을 데리고 한 개인 기업에 NTD TV를 설치해주러 갔다가 진상을 모르는 직원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우리 세 사람을 납치해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

시 재판을 여는 것은 그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릴 좋은 기회이니 잘 준비해야겠다.’ 포럼 수련생들이 준 심문 논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법정 변호 준비도 다 됐으니 아이와 밖에서 놀아준 지 오래라 잠깐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장난치고 노는 것을 보고 마음이 살짝 움직였지만 그때 곧바로 눌러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택배를 찾아오라고 하자 저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서 “엄마, 빨리 돌아와요”라고 외쳤고,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가는 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화목한데 우리집은...’ 저는 서둘러 이 생각을 억제하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 정상이지만 내가 추구하는 건 뭐지? 내가 추구하는 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자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은근히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또 “사부가 있고 법이 있다”를 몇 번 외우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2차 재판 당일, 떠날 때 저는 법을 외웠습니다. “그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사람을 구도하는 이치럼 큰일을, 당신들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좀 착실히 하고, 무슨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과 그다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마주치거나 듣게 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며,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라. 사악의 교란을 받지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런 좋지 못한 요소가 자신에게서 생기지 않으면 사악은 보

판사는 말했습니다. “날 겁주지 말아요. 파룬궁을 탄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조사받고 있던데요. 젊은 사람이 너무 급진적으로 굴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며 선전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피고석에서 당신을 보게 되면 견어찰지도 몰라요.”(농담투로 안전에 주의하라고 경고함)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한 지방의 관리로서 인민의 부모가 돼야 합니다. 재임 기간에 파룬궁 박해가 발생했는데 그 관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생각해 안전에 주의하라고 귀띔해주니 저도 당신을 위해 알려 주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무사히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둘 다 자신을 잘 보호합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요즘 제가 만난 체제 내 사람 중 유일하게 저에게 선의를 보여준 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말은 듣기 좋게 하지만 내가 만약 당신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당신은 당장 날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거잖아요. 그때 되면 당신이 날 여기저기 고소하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릅니다. 어머니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는 저의 권리이며, 저는 항소나 형사 재심 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목적이 아니며, 당신이 책임을 떠안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차 재판은 판사가 공안국에 왜 감정의견통지서를 피고인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해서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위 증거 자료는 우리에게 해가 없기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다.

불법 가택수색 때 경찰은 침실에서 제가 공안 경찰에게 쓴 권선(勸善) 편지를 발견했고, 아마 그들도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사건 담당 경찰이 편지를 손에 들고 제 옆으로 오더니 온화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이 편지 당신이 썼습니까?” 제가 “제가 썼습니다”라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글재주가 꽤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은 당신들이 진상을 알고 큰 재난이 닥칠 때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는 모두 풀려났습니다. 저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가정 방문 NTD TV 설치 항목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직접 접촉하는 중생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저는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그곳에 전하려 했습니다. 매번 외출하기 전에 저는 사부님께 향을 올리고 제자가 NTD TV 수신기를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설치해 제가 만나는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지해 주십사 청했습니다. 설치에 성공한 후 저는 또 진상 소책자나 진상 영상 카드를 선물해 그들이 더 많은 진상을 알고 몸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중생에게 알려줬습니다. “파룬따파는 창생에게 복을 주는 고덕(高德) 대법이며, 파룬궁이 박해받고 대법 사부님이 모함받는 것은 중공이 조작한 세기의 억울한 사건입니다. 중공은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을 연출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려 중생이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고 중생의 제도를 가로막는데, 바로

중생을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NTD TV는 전 세계 중생을 대상으로 진상을 알리는 언론 매체이며 내용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나서 진상을 알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뒤이어 NTD TV를 설치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법공부하고 수련함에 따라 저는 다방면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이 수련의 길에서 끊임없이 정진실수(精進實修)하며 길을 갈수록 넓고 좋게 걸었습니다. 저는 시시각각 진(眞)·선(善)·인(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중생구도를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중공 악당의 인터넷 봉쇄가 심각해 한번 봉쇄가 발생하면 저는 집집마다 다니며 채널 설정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골은 길이 멀어 업무량이 더 많았는데, 저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샛길을 누볐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가 되어 중생이 온 가족과 모일 때면 으레 NTD TV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악당의 교란과 파괴로 수신 신호가 자주 끊기는데, 이때 저는 밥을 먹다가도 손가락을 놓고 즉시 출발해 수리했으며, 중생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저는 줄곧 견지해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정법(助師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수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길을 잘 걸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苦度)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막막하고 서글프고 무력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발정념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마터면 소침해질 뻔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각지 설법5-2005년 캐나다법회 설법)

두 번 외우자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여 소극적인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수련인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만약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이 중생이 진상을 아는데 유리하다면 저는 갈 것이고, 아니라면 발정념하여 박해를 제거하고 막아야 합니다.

차분해진 후 법원에 가서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가는 내내 발정념하며 사부님께 판사가 직접 나오게 해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정말로 판사가 직접 나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불법이나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당신들 법조인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어머니는 1999년 이전 자유로운 환경에서 파룬궁을 수련하셨고, 수련의 유일한 목적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쩌민이 법을 초월해 가짜뉴스를 날조하고,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며, 불법적인 운동을 일으켜 먼저 박해를 시작했기에 제 어머니가 나중에 사실을 해명한 것입니다. 장쩌민은 권력을 이용해 파룬궁 박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파룬궁 박해에 열을 올린 관리들을 중용하여 나쁜 사람이 관직에 있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낙마하는 것은 하늘에 눈이 있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업보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재판 전에 제출한 법률 신청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사부님의 일깨움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가 협력을 강조하고 포럼 수련생이 법률을 강조한 것은 사부님께서 두 가지를 융합해 모두 잘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제 문제를 지적한 것도 사부님께서 제가 수련의 길에서 모두가 저를 떠받들며 잘한다고만 하면 저를 망칠까 봐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적하고 제지해야 제가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더 큰 지혜와 전면적인 사고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제게는 바르지 못한 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싫어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싫어함'과 '두려움'이 바로 집착이며, 수련인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갈등을 직시해야 하며, 갈등 속에서야 수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았습니다.

재판 후 저는 곧바로 포럼에 상황을 피드백했습니다. 한 포럼 수련생은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주었으며, 다른 포럼 수련생은 계속 제 부족함을 지적하며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심 없는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웠고, 덕분에 법률로 박해에 맞서는 길에서 의지할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포럼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수련생은 하나의 정체(整體)임을 느꼈습니다.

6. 2차 개정에서 심성을 연마하고 마음가짐을 바로잡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는 판사에게 새로운 증거가 있어 2차 재판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 (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법을 배운 젊은 여성 대법제자이며, 지금은 결혼해 아이도 낳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률 방식을 활용해 박해에 맞서 어머니를 구한 일을 사부님께 보고 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그 과정에서의 수련심득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몇 년 전 수련 중의 몇 가지 단편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질서 있게 안배하신 수련의 길이었었고, 제가 훗날 어머니를 구출하는 길에 든든한 수련의 기초를 다져주었기 때문입니다.

1. 고생을 참고 정진하며 무조건 자신을 찾다

1) 혼사로 인한 갈등, 안으로 자신을 찾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수련을 중시하셨고, 제게 큰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후, 제 수련이 예상보다 못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역시 수련인이셨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아이들도 컸으니 이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결혼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극력 반대하셨는데, 조금 더 늦게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 매우 억압된 심정으로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인테리어 냄새가 심

해 우리는 시댁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 마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약혼할 때부터 이미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기 시작했기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매일 법 암기를 견지했고, 덕분에 그 쓰라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와 남편은 새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해야 했고, 어머니가 주는 압박과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남편이 일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게 수련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모든 감정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 차 안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기간에 법을 외우는 상태가 비교적 좋았기에 울면서 사부님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제자는 절대 밖을 보지 않겠습니다. 단지 현 단계에서 제 도량이 부족함을 인정할 뿐이며, 분명 제게 문제가 있기에 빨리 제고해 올라오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으로 찾는 습관이 제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든 오직 자신만 찾고 밖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수련은 고생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 남편이 가게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 일 때,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그는 저 몰래 어떤 여자에게 속아 20만 위안을 사기당했고, 결혼 전 사업을 하다가 10만 위안의 빚을 저 신용카드에 총 30만 위안(약 6천만 원)의 빚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월급이 매우 적어 평생 모아야 그

일주일 만에 변호 의견서를 정리해 포럼 수련생에게 보냈습니다. 포럼 수련생이 그중 한 단락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바로 제 사상이 바르지 못한 단락이었습니다. 저에게 법을 첫 자리에 놓지 않고 일반인의 방식으로 대법제자에게 공정함을 얻어내려는 요행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르지 못한 관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율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늘 협력을 강조하고 다른 수련생들을 설득하라고 하며 제가 법을 연구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공의 포럼 수련생들은 법률 전문가여서 법률적인 측면에 집중해 제게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현지 수련생들은 제가 수련생들 사이에서公安·검찰·법원에 진상을 알린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연설 난법으로 개인승배를 조성하고, 법을 배우지 않고 사람을 배우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법정 변호를 준비하느라 일사일념을 진지하게 찾을 시간이 없어 대강 마음만 닦는 상태였고, 수련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다음 날 재판할 때 길에서 저는 법을 외웠습니다. “당신들이 어려움을 크게 볼수록,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상유심생(相由心生)이라, 그 일은 더욱 번거롭게 될 것이다.”(각지 설법10-에포크타임스 회의 설법) 맞습니다. 재판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저는 사부님의 제자이기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처음의 긴장을 제외하고 저는 준비한 말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도 아주 좋으셨고 머리가 맑고 정념이 매우 족했습니다. 판사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제가 처음 변호인을 맡아 긴장한 것을 많이 이해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했으며,

공의 비방과 거짓말을 씻어내고, 대법 진상이 체제 내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 신청서를 썼습니다. 저는 제 선의와 대법의 힘이 제가 쓴 청구서에 스며들었다고 믿습니다. 열흘간 구류의 교훈은 저를 더욱 안정적이고 착실하게 걷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발정념 상태를 바로잡았습니다. 예전에 발정념은 이기적인 것이었고, 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허리와 목을 곧게 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발정념을 했고 발정념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후 저는 조사정법한다는 사명감과 영광을 느꼈습니다. 뚜렷하게 느낀 점은, 좋지 않은 생각이 감히 오지 못하고 제 공간장이 마치 아주 뜨겁고 발이 데일 듯하여 나쁜 생각이 솟아나자마자 바로 데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1초만 늦어도 제거될 듯 말입니다.

5. 재판 과정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다

나중에 지원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법원이 어머니에 대해 재판을 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저는 마지막 공판 단계에서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친족 변호를 신청했고,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 긴장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공의포럼(公義論壇)의 수련생들이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공부했고, 특히 핵심인 법정에서의 증거 대질 절차를 중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이 너무 난해하고 지루해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멈추고 잠시 법을 배우며 제가 가야 할 이 길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꾸준히 안으로 찾은 덕분에 순식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고난을 겪는 법이고, 결혼 후에 생긴 일이니 이걸 내가 넘어야 할 고비예요. 나는 수련인이니 당신과 함께 감당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지금은 내가 냉정하고, 대부분 냉정함을 유지하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내 마음도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잔소리할 때가 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가 서서히 반드시 닦아낼게요.”

저는 남편에게 양가 부모님을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그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빚은 당장 갚을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돈 한 톨도 요구하지 않겠으니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 주세요.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 명절에 자식들이 예의나 효도가 부족하더라도 탓하지 말아주세요.”

가게를 연 후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때로는 대법서적을 보다가 이익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치솟아 책을 더는 볼 수 없게 됐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을 끌어내 호통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면 계속 걸어서 빙빙 돌며 마음을 다독였고, 서서히 차분해진 뒤 다시 법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젖을 떼고 가게에 나가 도왔는데 외상값을 갚지 않고 계속 외상만 하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외상을 주지 말라고, 외상값이 쌓이면 그 사람이 더 갚기 어려워진다고 권했습니다. 남편이 듣지 않자 저는 ‘내 자신을 수련해야지, 강제로 남의 생각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외상값을 갚지 않은 남자가 또 와서 외상으로 먹었습니

다. 저는 몹시 불만스러워 남편에게 거절하라고 권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분노와 불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 더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획’ 하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남편 혼자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시계를 보니 마침 수련생들이 저녁 법공부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은 이 시간에 다들 집에서 법공부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화를 내고 있다니, 너무나 수련인답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평소 이익에 대한 마음을 날마다 갈고닦으며 도량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몇 년간 저는 매년 한 번씩 큰 이익의 관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빚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연말에 정산해보니 남편이 계산을 잘못해서 빚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1년 뒤 겨우 다 갚았는데 이번에는 남편 친구가 사업 자금을 넣겠다며 돈을 빌려갔고, 원금과 배당금을 같이 주고 제때 갚겠다고 했지만 결국 갚지 않아 또 빚더미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앉아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련은 큰 고생을 견뎌낼 준비가 필요한데 제자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련해서 이겨내겠습니다.”

해마다 이어진 시련 끝에 마침내 사부님의 보호 아래 빛을 다 갚았고, 저 또한 근본적인 집착을 찾아냈습니다. 빛을 다 갚은 후의 어느 날 밤, 마음속으로 ‘이제 이 일은 그만하고 싶어. 매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밤새우는 건 너무 일을 그르치는 거야. 나는 예전에 회계 일을 했으니 집에 빛도 없겠다, 체면 서는 직장을 구해서 남

온 후 저는 법공부에 몰두했고, 사부님의 최근 짧은 신경문 몇 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자신을 찾아봐야 해. 문제는 내 고소장에 있어. 그럼 나는 왜 고소를 썼지? 정말 중생을 위해서였나? 정말 그렇게 순수했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선을 닦음이 부족했고, 비록 중생에게 진상을 알리려는 마음은 있지만 제 목적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며, 순수하지 못한 점이 틈을 타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매일 전날보다 더 나아지겠습니다. 높은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사부님을 돕는 길에서 최대한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매일 법리를 깨우쳐 주셨고, 저는 매일 제고하며 제 신의 일면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건 담당자에게 선을 권하는 편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 행정심판 신청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제 기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행정심판 신청서를 쓰려고 할 때 사부님께서는 “진념(眞念)이 펼쳐지니 온 하늘이 개이네”(홍음4-감개)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신청서를 쓰려는 기점이 바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사법기관이 대법 진상을 보고 중

이 열흘 동안 저는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하고 대법 노래를 불렀으며,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부님의 보호를 느꼈고, 대법의 힘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전히 어머니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집착하고 있음을 찾아냈고, 그로 인해 틈을 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은 제게 “집착을 남김없이 수련”(홍음-미혹 속의 수련) 하라고 일깨워주셨고, 저는 이것이 누락이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의 시간과 관련된 법을 외웠습니다.

“대법은 또 시간·공간·수많은 종류의 생명 및 만사만물(萬事萬物)을 만들었으며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빠뜨리는 것이 없다”(정진요지-논어)를 외울 때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와 거대한 에너지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공경하게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모든 것은 사부님의 안배하에 있습니다. 미혹 속에 있는 제자가 어찌 감히, 어떻게 사부님의 시간에 대한 안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 제자는 겸손히 받들겠으니 사부님께서 안심하십시오.”

그 후 구류소를 나올 때까지 저는 매일 법 속에서 충실히 지냈고, 몸소 선(善)을 실천해 구류소 사람들에게 젊은 수련인이 고생을 견디고 도량이 넓으며, 남을 선하게 대하는 대법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바보 같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선행을 보며 그들은 모두 생각을 바꾸어 모두 제 어머니가 빨리 집에 돌아가길 축복해주었으며, 저에게도 안전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열흘 뒤, 저는 홀가분하게 구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

시중드는 일은 안 하고 쓸 만큼만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저는 갑자기 제 근본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성인이 돼 진정으로 수련을 시작한 뒤 제 수련의 근본 목적은 ‘인간세상의 고생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돼 명리를 다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져서 반드시 수련해서 더는 인간세상의 고생을 겪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속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수련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 집착을 깨달은 후 저는 의자를 가져다 가게 문 입구 밖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저는 확실히 어릴 때부터 줄곧 고생해왔고, 어머니가 불법 감금됐을 때도 또래보다 훨씬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생을 잘 참지. 그렇다면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마음 우러러 고생을 감내할 의향이 있어?’ 제 마음은 무겁고 서러웠으며 저는 ‘아니, 원하지 않아’라는 내면의 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명명백백하게 고생을 감내할 의향이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고, ‘그것’이 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저는 끝내 ‘기꺼이(甘願)’라는 글자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그쳐 물었고, 약 30분 동안 자신에게 물은 뒤에야 마침내 마음이 풀렸고,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자신에게 말하고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겠습니다. 제자는 명명백백하게 고생을 감내하고,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수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이 근본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수련 상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평화롭고 흥가분했으며, 생활 속에서 마음의 파동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고, 마치 곧 인간세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처럼 무욕무구(無欲無求)하고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격리된 듯 다시 ‘집착’이 생기고 ‘사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새로운 단계의 수련을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오랫동안 착실하게 수련한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세상 만물이 다 가짜 같고 인간세상에 머물 수 없어 금방이라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아주 짧아 2~3일 정도였는데 사부님께서 그 상태를 멈춰주셨고, 새로운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돈을 저축해 주었는데, 웬지 모르게 1만 위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집안의 빛이 겨우 없어지면 일이 터지는데, 건건마다 모두 남편이 제 조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마음을 연마하며 더욱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 생각하고 권유했습니다. “이익을 너무 중하

하게, 수색에 참여한 경찰에게 회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수련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소환한 것은 제가 고소장을 썼기 때문이지요. 저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도부와 사건 담당자들이 제가 쓴 내용을 보고, 또 진지하게 읽었기에 저를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죄가 없고 저도 위법하지 않았음을 당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니 당신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잠시 당신들에 대한 고소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과출소 담당자는 제 상황을 알아듣고 저를 존중해주었으며, 정보대대의 명령이라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류소에 갇힌 후 처음에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고, 특히 저녁 식사로 찐빵과 절임 채소가 나온 것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홍음 2-정념정행)를 몇 번 외우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1) 기왕 왔으니 이 열흘을 잘 이용해 집에서보다 더 정진하는 상태를 닦아내야 헛걸음하지 않게 된다.

2) 수련인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수련인의 선량함을 보여줘야 한다.

3) 나는 현지에서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첫 주자이니 많은 수련생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나간 후에 모두에게 더욱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어 나 때문에 소극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신호등 하나를 지나자 머리가 마치 동전 뒤집듯 순식간에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머리가 맑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머리는 늘 맑고 깨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조사정법(助師正法)하는 과정에서 쉽게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원은 매우 복잡하므로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고, 사부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4. 선을 닦고 진념으로 타인을 위하다

어머니에게 일이 생긴 지 한 달 후, 저도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10일간 구류됐습니다.

하루는 파출소 경찰이 거짓으로 소장이 어머니 일에 대해 제게 답변을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이듣고 다음 날 파출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파출소에서 또 전화가 와서 소장이 회의하러 갔으니 집에서 잠시 기다리면 회의 끝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고 아버지도 우리집에 계셨는데 파출소 경찰 네 명이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였고, 오직 대법서적을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가택수색을 저지하며 10여 분간 대치했고, 법 집행 근거를 따져 묻고, 경찰증과 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바로 이 틈에 아버지는 제 침실에 있던 대법서적을 모두 숨겨 대법서적을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파출소로 끌려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냉정

게 보지 말아요. 당신이 돈을 너무 중하게 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여기저기 ‘계산’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 돈을 얼마나 모으냐에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업을 얼마나 없애고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근본이에요.”

지금은 남편도 수련으로 들어왔고 제가 수련 중에서 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지지해줍니다.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어 부부의 수련 인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3) 고부 갈등 속에서 수련해 내다

저는 안으로 찾는 것이 층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고부 관계를 5년 넘게 수련했는데 대략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가 제 생각과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때 노력해서 자신을 찾았지만 수련이 아주 더뎠고, 저는 늘 억지로 참아야만 밖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침대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장점이 있을 텐데, 오늘 시어머니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1. 생활이 매우 검소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셔. 2. 고생을 잘 견디고 솔직하게 직언을 하셔.’

더는 장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너는 시어머니보다 못하니 자신을 수련해야 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금방 시어머니의 이게 틀렸고 저게 수련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그 생각들을 눌러버렸습니다. 서서히 마침내 시어머니를 주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쭐함과 남을 깔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의 단점을 주시하지 않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깔보는 마음이 올라와 잘난 체하며 제가 시어머니보다 낫다고 여겼고, 그렇게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년 넘게 지속됐고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날, A 수련생이 저에게 현지 교류에 참여하자고 했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A는 말했습니다. “갑시다. 다른 지역은 다 교류했는데 우리 지역은 서로 모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안으로 찾으며 착실하게 수련한 심득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에 A가 우리집에서 법공부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교류한 내용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당신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보았는데 아주 뚜렷했어요.” 제가 “어떤 문제인가요?”라고 묻자 A는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모두가 알아요.”

수련생이 떠나간 후 제 마음은 들끓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저는 타지에서 왔음), 한 번 보고 내 문제를 다 알았다고? A는 나보다 더 하잖아. 부부가 다 수련생이면서 갈등이 첩첩산중인데 내 잘못을 들추려 하다니.’

이런 생각이 제가 아님을 알았지만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쁜 생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고 싶지? 좋아, 지금 생각하게 해줄 테니 실컷 생각해봐! 고작 내가 수련생과 거리를 두고, 기껏해야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잖아. 고작 그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나쁜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으니 나는 자신을 찾아보자.’ 즉시 제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네 당당한 공안국 입구 간판에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한다’고 얼마나 근사하게 써놨습니까. 저는 당신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치라도 따질 곳이 있기를 바랐고, 인민이 억울할 때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일로 저는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구 공안국, 구 검찰원, 구 정부, 시 검찰원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름 하나 묻는 것도 감히 알려주지 못하는데, 만약 정말 정당하다면 이름을 못 델 이유가 뭡니까?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호소에 응답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두 경찰은 다소 감동한 듯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남겨두려 하자 그는 감시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 저는 공안·검찰·법원에 갈 때마다 전날 읽었던 법을 떠올렸고, 사부님께서 바로 제 곁에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전날 읽은 법은 반드시 그날 제 수련을 지도해주며, 제가 법만 떠올릴 수 있다면 정념을 갖고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제 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조금만 많아져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으며, 조금만 일이 있어도 생각을 건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이 터진 처음 며칠간 제 머리는 쉴 새 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앞길을 바라보며 마음속 정념이 아주 바르고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경찰 역시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각지 설법12-2013년 대뉴욕지역법회 설법)이라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경찰의 표면에 미혹되지 않고 39호 문건, 50호령을 들고 특별히 의자를 옮겨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파룬궁을 사교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저는 제 법률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당신들 공안부에서 발표한 문건이며,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모두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 경찰이 우리 어머니를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법 기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법률 실시도 파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찰은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고, 눈빛에 서려 있던 선하지 않은 기운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시 전체가 파룬궁 사건을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구 공안국에 가서 상황을 알리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네 공안 민원실에 와서 제 민원을 설명했는데, 당신은 경찰 제복을 입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정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니 저더러 구 공안국에 돌아가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라고 한 것을 저는 이미 기록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감히 이름을 알려주지 못하고 경찰번호만 적어가면 된다고

문제를 알았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월하게 굴며 남을 깔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A가 다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난번 당신의 교류가 참 좋아 못 들은 수련생들이 듣고 싶어 하니 우리 다시 모입니다.” 다시 교류할 때, 이번에 자신을 찾아보고 ‘우월하게 굴며 남을 깔보는 마음’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A는 감동을 받아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수련생들 사이가 모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간격이 없을 텐데.”

그 후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 이 우월하게 굴며 남을 깔보는 마음을 없애주셨음을 알았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도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의 뿌리를 찾아 스스로 돌파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밥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생의 수련의 길은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으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내 수련의 길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야. 만약 퇴직금을 받아 돈이 많고, 갖가지 반찬과 국을 매일 해주며, 아이도 돌봐주고, 온전히 나를 위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그건 나를 망치는 게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고 시어머니의 어려움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련할 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고, 그래서 매우 고되고 힘드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며 마침내 제가 왜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지 찾아냈습니다. 약혼 때 저와 시어머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젊어서 겪은 일이 적고 성격도 급하며, 어머니는 또 감옥에 계십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봅니다. 집에 가서 저 자신을 좀 수련하면 괜찮을 겁니

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맞아, 바로 네 잘못이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수련인답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바로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수련에 관한 일로 시어머니와 말 한마디 섞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로 시어머니와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남이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이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누구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네가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오직 시어머니만이 그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닦아 버린 뒤 저는 먼저 시어머니께 사과드렸고, 결혼 후 몇 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우 감동받으셨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수련해 냈습니다. 오직 자신을 수련해야만 수련생인 시어머니가 감동받으시고, 진정으로 안으로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최초의 수련상태를 찾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2. 어머니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점차 남을 위하는 진념을 닦아내다

어머니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인의 신고로 또 납치됐습니다. 어머니를 구출하고,公安·검찰·법원 인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사부님의 손을 붙잡고 사부님의 보호와 깨우침 속에서 확고하고 착실하게 자신을 수련했고, 점차 사심을 닦아버리고 중생을 구하려는 진념(眞念)을 수련해 냈습니다.

1) 첩첩산중인 압박

어머니가 잡혀가신 것을 알게 된 직후, 저와 아버지는 집안의 대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 (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전편에 이어)

3. 선념이 나오자 심신이 변하다

구(區) 검찰원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자 저는 시 검찰원 고발·신고과에 갔습니다. 시 검찰원도 접수하지 않자 시 공안국 민원실에 들러 구 공안분국 정보(政保, 정치안전보위) 경찰의 위법 집행을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보조 경찰이 저를 맞이했는데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했고 태도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파룬궁 사건을 민원실에까지 와서 신고하다니?’라는 듯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온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제 개인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저도 펜과 종이를 꺼내 그의 이름과 경찰번호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 저는 그의 경찰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뒤이어 정식 경찰이 왔는데 얼굴에 선하지 않은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국가는 파룬궁을 어떤 성격으로도 규정한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는 법률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이는 시민의 신앙 자유, 언론 자유에 속합니다.”

제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큰소리로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인식이라면 우리는 더 이야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에 가서 정보 경찰의 법 집행 오류를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주시했고, 매일 밤 잠 들기 전 하루 동안의 모든 생각을 되돌아보며 빠르게 제고했으며, 마음가짐도 점점 더 안정됐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함께 몇 차례 공안국과 검찰원에 다니면서 서서히 박해받은 그늘에서 벗어나셨고, 안으로 찾는 법도 배우셨습니다.

한번은 현지 기율검사감찰위원회(기율위)에 공안국 담당 경찰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낸 뒤, 며칠 지나 시정부 민원실을 찾아가 감찰위원회에 입건 상황을 물었습니다. 민원실로 가는 길에 기율위 사람과는 접해본 적이 없어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가족들이 뒤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좀 원망스러워 ‘조금도 의지가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박을 보면 안 된다. 가족이 같이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저는 ‘시드니법회 설법’을 몇 번 되뇌었고, 마음이 서서히 평온해졌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하고 고발이 접수됐는지 묻고는, 39호 문건과 50호령을 그에게 보여주며 생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민원실에서 고발을 접수해주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 이후 저는 예전처럼 오로지 어머니를 구출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사람을 구하는 각도에서 진상을 알리게 됐습니다. 공안·검찰·법원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가짐만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접하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변했습니다.(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법서적들을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하루가 지나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묻자 경찰은 어머니가 구치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기껏해야 며칠 구류되고 말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한 꼴이 되어 사악에게 틈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교류하며 경찰이 다시 집에 오면 글자 하나도 서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돼버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습니다. 비록 압박이 매우 컸지만 저는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공안부 39호 문건과 2011년 신문출판서 50호령을 가지고 파출소로 사건 담당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고 다리도 좀 떨렸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 제 다리를 두드리며 심장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무 약해. 이 정도 일도 감당 못 하면 안 돼. 너는 커져야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해.’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파출소 출근 시간이 되어 다리가 떨려도 나가야 했고, 파출소 문 앞에 도착해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안은 쇠창살로 모두 막혀 있어 그 너머로만 경찰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어머니를 구치소에 가뒀는데, 법

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누가 제 어머니를 납치했습니까? 언제 사건을 접수하고, 언제 입건했나요? 저는 당신들이 먼저 가택수색을 하고 나중에 입건했다고 의심이 드니 이 모든 정보를 알아야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신앙 문제이며, 법률은 행위만 처벌할 뿐 생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파룬궁은 X교가 아니며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인 출판물입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남기려 했으나 그들은 감히 받지 못하고 사건 처리가 안 끝났다며 집에 가서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와 아버지는 상의하여 인권 변호사를 찾았으나 변호사는 그 주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록 좀 실망했지만 곧바로 제가 밖을 향해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원래 사부님께서는 제가 변호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변호사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갑(甲) 지역 수련생들이 수련생 구출에서 정념이 매우 강하고 성숙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공백 상태임을 깨닫고는 갑 지역 수련생들을 초청해 우리 지역에서 관련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갑 지역 수련생들은公安·검찰·법원과 접촉하는 과정 중의 정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기본적인 법률 상식도 알려주었습니다.

2) 두려운 마음을 돌파하다

이번에 어머니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사부님의 체계적인 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나서서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현지公安·검찰·법원 인원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했

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주역이 되어 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끊임없이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연이어 불법 노동교양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늘이 있었습니다. 웬지 모르게公安·검찰·법원 인원들과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는 것은 괜찮으나 전화하는 것은 무척 두려웠습니다.

한번은 어머니의 상황을 알기 위해 검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고, 1시간 동안 발정념을 해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고 제가 직접 전화해야 했지만, 마음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전신거울 앞에 앉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법제자다.’ ‘너는 이 일을 할 것이냐?’ ‘할 것이다.’ 저는 30분 넘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 이제 전화하지 않으면 검찰원 퇴근 시간이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하는 전화 벨 소리를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고 정상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公安·검찰·법원 인원들과 다시 접촉할 때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제게 검찰원에 가서 법률 자료를 제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검찰원에 가서 변호사가 타지에 있어 올 수 없다는 명목으로 법률 문서를 검찰관 보좌관에게 주었고, 그에게 정보(政保, 정치안전보위) 경찰의 법 집행 오류와 법률 적용 착오를 알리며 제 어머니는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公安 감찰 부